

# 전남도-시군, 도민 체감 복지 확대

복지정책 담당 관계관 회의

복지기동대 활성화·사각지대 발굴  
확진자·격리시설 돌봄인력 지원

전남도는 지난 3일 비대면 영상으로 도·시군 복지정책 담당 과장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복지정책 관계관 회의를 열어 코로나 위기 속 도민이 체감하는 복지시책을 확대 추진하는데 힘을 모으기로 다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전남도는 올해의 복지정책과 추진 방향과 사회복지, 노인장애인 복지 등 부문별 시책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시·군 건의사항을 수렴했다.

전남도는 올 한해 코로나에 대응하면서 도민 삶을 바꾸는 맞춤형 복지와 보편적 복지 확대를 목표로 '복지 사각지대 발굴',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24시간 밀착 돌봄', '복지 인프라 확충'에 주력하

기로 했다.

대표 복지정책인 '우리동네 복지기동대'는 그동안 도민 9000여 가구를 찾아가 전등 교체, 보일러 수리 등 생활에 불편한 요소를 해결하고, 기존 복지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던 위기가구를 찾아 80억원을 지원했다. 올해는 지원 대상 확대와 사업비 증액 뿐만 아니라, 시·군별로 복지기동대 활성화 계획을 세워 사각지대 해소에 발벗고 나설 예정이다.

또 저소득층 통장사업,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해보험 및 유급휴가 지원 등 다양한 계층을 위한 복지 신규사업을 시군과 함께 꼼꼼히 추진할 방침이다.

노인복지 분야는 돌봄, 일자리, 치매안심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면서 고령인이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즐기도록 정보통신기술(ICT)·사물인터넷(IoT) 활용 24시간 독거노인 건강 안전 확인 서비스, 어르신 지킴이단, 저소득 노인 무료급식·식사배달, 공중목욕장 운영 지원 등 정책을 추진한다. 여전히 사회 주축인 노인들의 재능

과 능력이 썩히지 않도록 최적화된 일자리 5만여 개를 발굴해 제공한다.

장애인복지 분야에서는 돌봄과 함께 사회구성원으로서 자립하는 데 중점을 두고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사업, 최종장애인을 일자리 사업 등 신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장애인이 당당하게 사회로 나아가도록 맞춤형 일자리 3000여 개도 제공하며, 여성장애인 세상 밖으로 교육프로그램,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운영 등으로 장애인의 사회진출도 돕는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돌봄지원사업을 확대해 확진자 및 코로나 격리시설까지 지원인력을 파견한다.

지난해 출범한 전남도사회서비스원은 국공립 사회복지시설을 직접 운영하고, 종합재가센터 운영을 통해 장기요양, 장애인활동지원, 노인돌봄 등을 지원한다. 필요한 모든 도민에게 보육에서 요양까지 수준 높은 통합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전남도·동부본부 핫라인 구축 소통 늘리고 업무효율 높인다

상시 활용 전용 영상회의시스템

전남도가 동부지역본부와의 신속한 소통과 업무 효율을 위해 전용 핫라인 영상회의시스템을 구축했다. 핫라인 영상회의는 평소 조직 내 소통과 업무효율을 강조한 행정부지사의 의견에 따른 것이다.

8일 전남도에 따르면 행정기관은 영상회의 시스템(온-나라 PC영상회의)을 비대면 회의에 주로 이용하고 있으나, 코로나19로 영상회의가 늘면서 끊김, 지연 등 성능 문제로 불편함이 있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행정부지사 집무실과 동부지역본부 사무실에 각각 화상회의 소프트웨어를 갖춘 LED TV를 전용선으로 연결, 상시 활용토록 함으로써 빠른 의사결정, 신속한 위기 대응, 정확한 피드백이 가능해졌다.

도민 건강과 직결되는 환경·산림 업무와 동부권 주민의 더 나은 행정서비스 등 제2청사 기능을 하는 동부지역본부와의 신속한 현장 대응체계 강화가 기대된다. 동부지역본부의 현안보고나 의사결정 시 도 본청까지 오가는 시간·비용 낭비를 최소화함으로써 소통을 더욱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최근 영상시스템을 활용해 동부권 산단 밑집에 따른 대기오염 문제, 노후 산단 재난사고, 산발 발생 상황보고 등 도민 생명과 재산에 밀접한 사안에 대해 신속한 보고와 정확한 지휘 체계를 유지하고 현장 대응 대책보고회를 열었다. 한편 2023년 5월 준공 예정인 전남도 동부권 통합청사 스마트 민원실에도 도 본청 방문 없이 영상으로 민원처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될 예정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

## 선박도 전기로...국내 첫 전기 차도선 목포 앞바다에 뚫다



전남도는 지난 4일 목포 삼진산단(유일 삼진공장)에서 국내 최초 전기추진 차도선 전수식을 개최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전남도, 420t 규모 전수식

연안 탄소배출 획기적 저감

연안선박 탄소배출 저감에 획기적 이정표가 될 대한민국 1호 전기추진 차도선이 목포 앞바다에 뚫다. 전남도가 목포시,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와 함께 지난 4일 목포 삼진산단 (주)유일 부두에서 국내 최초 순수 전기추진선이자 세계 최초 이동식 전원공급 시스템 기반의 전기추진 차도선 전수식

을 했다. 전수식에는 문금주 전남도 행정부지사, 김중식 목포시장, 김원일이 국회의원, 박장수 목포시의회 의장, 김부기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장, 한원희 목포해양대 총장, 조옥현 전남도의원, 명성호 한국전기연구원장, 유인숙 ㈜유일 대표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전기추진 차도선은 차량 형태의 이동식 전원공급시스템(800kw/h 2대)을 선박에 탑재해 운항에 필요한 전기를 공급하는 방식이다. 미세먼지, 탄소화합물 등 오염물질을 전혀 배출하지 않아

격 상용화하면 선박 탄소저감 및 깨끗한 연안 대기환경 조성에 크게 이바지할 전망이다. 선박 제원은 총톤수 420t, 길이 60m로, 승객 120명과 차량 20대를 실을 수 있다.

전남도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국비 268억원, 지방비 90억원, 민자 92억원 등 450억원을 투입하는 해양수산부의 '전기추진 차도선 및 이동식 전원공급시스템 개발' 공모사업을 유치, 국내 첫 전기추진 차도선 성과물을 탄생시켰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전남도 올 예산 11조2750억...1조 537억 증가

전남도의 2022년 예산 규모가 지난해보다 1조 537억원이 늘어난 11조2750억 확정됐다. 재정자립도와 재정자립도는 소폭 상승했다.

전남도는 올 한 해 예산현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2022년 예산기준 재정공시 자료를 도 누리집

에 공개했다.

올해 전남도 본정의 예산규모는 코로나19 침체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민 생활 안전망 강화 등을 위해 지난해보다 1조537억원을 증액한 11조2750억원이다. 총예산 중 일반회계가 9조583억원, 특별

회계는 9887억원, 기금은 1조 2280억원이다.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재정자립도는 지난해보다 4.1%p 상승한 26.23%로 나타났다. 재량권을 갖고 자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의미하는 재정자립도는 4.8%p 상승한 40.78%로 조사됐다. 재정여건이 다소 개선됐다는 의미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녹색에너지연구원·모든솔라·영남대 농업 공존형 태양광시스템 개발 나서

재단법인 녹색에너지연구원이 영농형 태양광 보급 확산을 통한 농촌 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업 공존형 태양광 발전시스템' 개발에 나선다. 한국 전력공사 공모를 통해 선정된 이번 과제는 녹색에너지연구원, ㈜모든솔라, 영남대가 참여하게 된다. 영농형 태양광 구조물 및 시공성 등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 이 연구개발 사업비는 2년간 총 12억4000만원이다.

이번 과제는 회전 직립형 영농형 태양광 지지 구조물인 SSP(스피드솔라라이프) 기술을 적용해 시공비용을 기존 대비 30% 이상 절감하고, 국내 풍하중 등에 적합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특히 해당 기술을 적용한 경제적이고 최적화된 영농형 태양광 시스템 개발을 통해 100kW 당 공사비를 1억 5000만원에서 1억3000만원 이내로 낮추고, 단위 면적당 수확량도 80% 이상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게 된다.

연구원들은 이번 연구과제 수행으로, 농어민의 소

득증대를 통해 영농형 태양광 보급이 확산되고, 아울러 청년층의 귀농도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구원은 영농형 태양광 보급을 위해 솔라팜㈜, 원광전력㈜ 등 3개 업체와 함께 한국형 영농형 태양광 발전시스템 표준화 및 작물 재배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도내에 13개소의 실증 단지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주동식 녹색에너지연구원장은 "이번 연구과제는 경제적이고 최적화된 영농형 태양광 발전시스템 개발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며 "앞으로 지역주민이 주도하고 안정적인 소득이 보장되는 영농형 태양광이 보급 확산될 수 있도록 비즈니스 모델 개발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녹색에너지연구원은 전남도에서 출연한 에너지 전문 연구기관으로, 해상풍력, 태양광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위해 다양한 연구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전남도, 국산김치 표시제 인증 업소 전국 최다

대한민국 김치의 본고장 전남도가 '국산김치 사용 인증업체 표시제' 지정업소를 전국에서 가장 많이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8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가 나서 전국 첫 시행한 민관협업형 '국산김치 사용 인증업체 표시제'를 인정받은 전남지역 업소가 5022개소에 달했다.

유형별로 음식점이 전체의 65%인 3251개소로 가장 많고, 학교급식이 1597개소, 공공기관 등 단체급식이 167개소, 휴게소 7개소다.

특히 도내 대표 관광지 주변 음식점 거리가 많이

참여했다. 지역별로 영광 굴비거리 30개소, 장흥 토요시장 25개소, 함평을 장터·무안 뽕낙지 거리 각각 19개소, 여수 남만포차 18개소, 순천 웃장 국밥거리 17개소, 신안 섬별낙지거리 9개소 등으로, 총 150여 음식점에 달한다.

기업체에서는 하루 1만3000여 명이 이용하는 영암 삼호조선소 구내식당 10개소, 3300여 명이 이용하는 포스코광양제철소 구내식당 5개소를 비롯해 곡성 금호타이어 등 도내 9개 업체에서 25개 구내식당이 지정을 받았다. /윤현석 기자 chadol@

<h3>장성 토지(매매 분양)</h3>	<h3>상가매매(상무지구)</h3>	<h3>경매교육 [ 특수전문반 ]</h3> <p>기초반,중급반</p>																										
	<p>중심상업지역 6층, 7층 (총분양 140평) 시세 -&gt; 9억 급매가 -&gt; 6억 (보 3천, 월 350만, 용 3억5천)</p> <p>(사무실 리모델링함,빠,유휴,모든업종가능 즉시입주 시비없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특수반모집 -&gt; 유치권, 법지, 지분, NPL(전문)</li> <li>2) 전문반모집 -&gt; 직업으로 하실분 (경매배우면서 수익가능)</li> <li>3) 기초반, 중급반, 특수반 =&gt; 평생 회원반</li> </ol> <table border="1"> <tr><td>광주</td><td>남구 행암동(임야)▶ 감정가 97억 -&gt; 54억 (2/23)</td></tr> <tr><td></td><td>서구 화정동(주택)▶ 감정가 3억7천 -&gt; 3억 (2/23)</td></tr> <tr><td></td><td>북구 일곡동(근린주택)▶ 감정가 6억1천 -&gt; 4억8천 (2/23)</td></tr> <tr><td></td><td>북구 본촌동(근린시설)▶ 감정가 15억 -&gt; 11억 (3/2)</td></tr> <tr><td></td><td>광산구 소촌동(농지)▶ 감정가 4억4천 -&gt; 3억1천 (3/3)</td></tr> <tr><td></td><td>서구 화정동(주택)▶ 감정가 2억5천 -&gt; 1억7천 (3/4)</td></tr> <tr><td></td><td>광산구 삼거동(임야)▶ 감정가 3억9천 -&gt; 1억7천(3/15)</td></tr> <tr><td>전남</td><td>진도군 진도읍(근린시설)▶ 감정가32억 -&gt; 18억 (2/21)</td></tr> <tr><td></td><td>목포시 옥암동(근린시설)▶ 감정가 25억 -&gt; 11억 (2/28)</td></tr> <tr><td></td><td>나주시 금천면(주택)▶ 감정가 4억1천 -&gt; 2억9천 (3/15)</td></tr> <tr><td></td><td>나주시 다도면(주택)▶ 감정가 9억9천 -&gt; 5억5천 (3/15)</td></tr> <tr><td>시외</td><td>당진시 송산면(다가구원룸)▶ 감정가 4억8천 -&gt; 8천 (2/15)</td></tr> <tr><td></td><td>서울특별시 중랑구(근린주택)▶ 감정가 17억 -&gt; 8억8천(3/2)</td></tr> </table>	광주	남구 행암동(임야)▶ 감정가 97억 -> 54억 (2/23)		서구 화정동(주택)▶ 감정가 3억7천 -> 3억 (2/23)		북구 일곡동(근린주택)▶ 감정가 6억1천 -> 4억8천 (2/23)		북구 본촌동(근린시설)▶ 감정가 15억 -> 11억 (3/2)		광산구 소촌동(농지)▶ 감정가 4억4천 -> 3억1천 (3/3)		서구 화정동(주택)▶ 감정가 2억5천 -> 1억7천 (3/4)		광산구 삼거동(임야)▶ 감정가 3억9천 -> 1억7천(3/15)	전남	진도군 진도읍(근린시설)▶ 감정가32억 -> 18억 (2/21)		목포시 옥암동(근린시설)▶ 감정가 25억 -> 11억 (2/28)		나주시 금천면(주택)▶ 감정가 4억1천 -> 2억9천 (3/15)		나주시 다도면(주택)▶ 감정가 9억9천 -> 5억5천 (3/15)	시외	당진시 송산면(다가구원룸)▶ 감정가 4억8천 -> 8천 (2/15)		서울특별시 중랑구(근린주택)▶ 감정가 17억 -> 8억8천(3/2)
광주	남구 행암동(임야)▶ 감정가 97억 -> 54억 (2/23)																											
	서구 화정동(주택)▶ 감정가 3억7천 -> 3억 (2/23)																											
	북구 일곡동(근린주택)▶ 감정가 6억1천 -> 4억8천 (2/23)																											
	북구 본촌동(근린시설)▶ 감정가 15억 -> 11억 (3/2)																											
	광산구 소촌동(농지)▶ 감정가 4억4천 -> 3억1천 (3/3)																											
	서구 화정동(주택)▶ 감정가 2억5천 -> 1억7천 (3/4)																											
	광산구 삼거동(임야)▶ 감정가 3억9천 -> 1억7천(3/15)																											
전남	진도군 진도읍(근린시설)▶ 감정가32억 -> 18억 (2/21)																											
	목포시 옥암동(근린시설)▶ 감정가 25억 -> 11억 (2/28)																											
	나주시 금천면(주택)▶ 감정가 4억1천 -> 2억9천 (3/15)																											
	나주시 다도면(주택)▶ 감정가 9억9천 -> 5억5천 (3/15)																											
시외	당진시 송산면(다가구원룸)▶ 감정가 4억8천 -> 8천 (2/15)																											
	서울특별시 중랑구(근린주택)▶ 감정가 17억 -> 8억8천(3/2)																											
<p>광주에서 20분(6M도로접), 장성댐 (호) 2분, 장성 IC. 5분 총 1760평 (150평, 200평, 500평, 분할가능) [전원주택,물류창고,주말농장,별장,투자적합]</p>	<h2 style="text-align: center;">010-6670-9800</h2>																											